

# 한미정상 백악관 첫 만남 후 한국전 참전 기념비 참배

의장대 도열 받으며 나란히 추모

김건희·질 바이든 여사 동행

소형 탁자·달항아리 선물 교환

국빈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저녁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Korean War Veterans Memorial)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찾았다.

참전 혈맹으로 맺어져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강고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정에는 김건희 여사와 질 바이든 여사도 동행했다.

한미 정상 부부는 이날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로 나란히 함께 걸어 들어왔다. 이에 앞서 백악관에서 먼저 만나 환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댄으며, 김 여사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색 정장, 바이든 여사는 옅은 하늘색 투피스 차림이었다.

한미 정상 부부가 현화대로 향하는 모습을 19명의 병사 동상이 지켜봤다.

한국전쟁 등에 참전했던 미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19개의 동상으로 표현한 조형물이다. 눈비를 막는 판초 차림의 이들이 한국의 눈밭을 가로질러 순찰하는 모습이 연출돼 있다.

맨 앞에는 병사의 바닥에는 "우리나라는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자는 요청에 부응한 조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현화대에 도착한 다음, 나란히 고개를 숙이고 3초간 묵념했다. 김 여사와 바이든 여사도 함께 묵념했다.

한미 정상 부부는 이어 진혼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왼쪽 가슴에 손을 올려 추모했다. 그 옆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미군 의장대가 도열했다.

한미 정상은 이후 화환에 손을 얹는 것으로 현화 일정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미 기

간 중 바이든 대통령을 처음으로 대면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늦은 오후 백악관 대통령 관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첫 대면하고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대통령실 이도은 대변인은 이날 밤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같이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늦은 오후 백악관 관저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다음, 내부 공간을 직접 안내했다.

거주 공간이기도 한 관저로 초대, 국빈인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환대와 정성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부부는 블루룸에서 방명록과 동맹 70주년 사진집에 서명했으며 발코니에서 워싱턴 주변 경관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양 정상 부부는 상호 관심사, 양국 인적·문화적 교류, 국정 철학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눴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한다"며 "국빈으로 오신 귀한 손님을 소중한 공간에 초청하게 돼 기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환대에 사의를 표한 뒤 "오늘 한미 정상 두 부부가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해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더 친밀감을 느낀다"고 회담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함께 방한하면 (한남동) 관저에 초청하고 싶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미 정상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선물도 교환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소형 탁자와 화병, 목걸이를 선물했다.

백악관은 별도 발표자료에서 이 소형 탁자가 마호가니 나무에 역사가 오래된 백악관 나무로 무늬를 새긴 것으로, 한국 전통 소반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빈 방문을 기념하는 황동 명판과 한국계 미국인 예술가가 종이로 만든 무궁화와 장미꽃을 담은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와 함께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을 참배한 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화병도 포함됐다.

바이든 여사는 김 여사에게 한국계 미국인이 디자인한 파란 사파이어 3개가 박힌 목걸이를 선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야구애호가인 윤 대통령을 위해 프로야구 선수가 쓰던 베트와 야구 글로브, 야구공으로 구성된 빈티지 야구 수집품을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달항아리와 쪽두리, 은주전자 등을 선물로 전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워싱턴선언서 ‘한국형 확장억제’ 명문화”

한미 정상, 별도 성명 첫 채택

대통령실 “핵그룹 창설도 포함”

핵우산 기대 이하 지적 나올 수도

대통령실은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수행하는 이도은 대변인은 현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 선언에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창설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확장억제의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을 포함한 워싱턴 선언이 채택될 것이라는 미 행정부측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언급으로 보인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 및 전략 기획 현안에 초점을 맞춘 정기적인

양자 협의기구인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을 발표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미 양국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기로 한 것은 기존의 확장억제 강화를 정상 간 문서로 명문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극대화하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커지는 여론을 고려해 확장억제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합의를 놓고 미국이 이번에 약속한 ‘확장억제 담보’ 수위가 한국 내 안보 불안을 누그러뜨리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를 이번 회담의 최우선 의제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sole authority)”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핵 사용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연합뉴스

## 尹, 방미 이틀간 59억 달러 투자 유치...코닝, 15억 달러 추가

넷플릭스 이어 6개 기업 19억 달러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코닝이 한국에 대해 15억 달러 추가 투자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방미 이틀 만에 총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넷플릭스 투자(25억 달러)와 이날 투자신 고식에 참석한 6개 기업 투자(19억 달러)에 더해 윤 대통령이 참석한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코닝이 ‘깜짝’ 발표한 15억 달러를 더한 금액이다.

최 수석은 “미국 첨단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 중에 참가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계획에 대한 발표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이틀째인 이날 워싱턴 DC의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과 미국 기업의 대(對)한국 투자 촉진 등을 논의했다.

웬델 워스 코닝 회장은 “코닝은 지난 50년간 한국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수천 명의 고용 창출했다”며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5년간 한국에 1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티모시 아처 램퍼서치 회장도 “그동안 한국 반도체 공급망에 45억달러 투자했다. 아시아로선 최초

로 한국에 R&D센터를 설립해 2030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한국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올란드 산체스 록히드마틴 부사장은 “KAI(한국 항공우주산업)와 FA-50 마케팅도 함께 진행 중인 데 양국 우주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양국 안보에도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최 수석은 “KAI는 원래 록히드마틴과 FA-50 미국 수출을 추진 중이며 500대 규모의 미국 사업, 나아가 1천300대 규모의 세계 수출까지 성공하면 최대 340조원에 달하는 산업 파급효과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제25회

# 함평나비대축제

2023. 4. 28. (금) - 5. 07. (일) 10일간 함평엑스포공원 일원

봄을 여는 소리, 함평나비대축제  
뚝.뚝.뚝 나비야 일어나! 봄이야!

주최 | 함평군 | 주관 | 함평축제관광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 |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 한국관광공사 | EX 한국도로공사 | KORAIL 한국철도공사